

“깊이 있는 전통, 다양성 가득”

전주세계소리축제, 판소리·산조·성악 시리즈·연희 등 다채로운 전통음악 정수 만날 수 있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는 오는 8월 13~17일 닷새간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과 월드뮤직, 클래식, 대중음악, 어린이 프로그램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소리축제의 대표 브랜딩 공연 '판소리 다섯바탕'이 매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린다.

13일 개막일에는 남상일 명창이 '수궁가'를 선보인다. 14일에는 이난조 명창의 '흥보가'가, 15일에는 윤진철 명창의 '적벽가'를 만날 수 있다.

이어 16일에는 염경애 명창이 '춘향가'를, 마지막 17일에는 김주리 명창이 '심청가'로 '판소리 다섯바탕'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어 15일 오후 4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는 '산조의 밤'이 펼쳐진다.

즉흥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산조의 매력을 선사할 이 무대에는 이지영 명인이 전통적인 산조 질서와 미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지영류만의 독특한 성취가 있고 가락과 장단이 변화무쌍한 이지영류 가아급 산조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 소리축제가 아쉽게 기획한 공연으로 전통 성악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성악열전' 시리즈가 8월 15~17일 매일 오후 1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진행된다.

15일에는 '동희스님의 범패' 공연이 펼쳐진다. 70여 년 동안 묵묵히 범패를 재정에 올린 동희스님의 불교에 귀의한 구도자로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16일에는 절제와 느낌이 담긴 가곡 중에서 여창가곡의 묘미와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조순자의 여창가곡'을 선보이며, 17일에는 선유가, 아리랑, 금강산타령 등 경기민요의 다양한 악곡을 만날 수 있는 '이춘희의 경기민요'가 무대에 오른다.

계속해서 8월 13~14일 오후 1시 30분 양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실력 있는 소리꾼들의 5인 5색 무대를 만날 수 있다. 13일에는 황지영(삼청가), 류창선(흥보가), 김미성(춘향가)을, 14일에는 김기진(수궁가), 이서희(적벽가) 공연이 펼쳐진다.

끝으로 15일 오후 6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는 '강릉단오제 X 전주세계소리축제 푸너리'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장은성 기자

‘라디오, 소리로 엮은 시간의 기억’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이달의 소장품’ 전시 8월 17일까지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이달의 소장품 전시로 ‘라디오, 소리로 엮은 시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한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벽골제아리랑사우소 내 벽골제농경문화박

물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라디오 2점은 금성사(GOLD STAR)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1957년 삼양전기, 1958년에 금성사가 최초의 라디오 생산업체로 등장해 수신기 부품을 수입하여 라디오 생산을 시작했다.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이달의 소장품 전시로 ‘라디오, 소리로 엮은 시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한 기획전을 개최한다.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여성친화도시 실무자 워크숍 열려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거점형양성평등센터(원장 전정희)는 17일 전북여성가족재단 세미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전북지역 성주류와 협의체 사업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지원하

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 관내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수행 중인 주요 사업과 과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전라남도공공단체 오미란 대표가 ‘지역 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발굴과 실행’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

한 실현 가능한 사업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간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주류와 협의체를 통해 실무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평등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점형양성평등센터는 성주류와 제도 지원,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지역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1)

‘사람을 죽여주소’

- 오상근 -

후대폰을 힐끔힐끔 쥐고 있던 손가락에 악력이 들어갔다. 깊은 동굴 어디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곰팡이가 잔뜩 피어난 폐광 깊은 음습한 곳에서 만들어진 음성이었다. 높아져 있던 강동식의 허리가 뻗뻗하게 곤두섰다. 양어깨 삼각근에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얹혀진 누워 있던 호랑이와 용 문신이 인상을 구기며 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사람을 죽여달라니, 지금 장난하나!

대차게 소리를 질러주고 싶었지만 동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흉곽을 넓히면서 입 밖으로 숨구르려는 말을 꼭 눌렀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다들 동식처럼 온천물과 사우나로 데쳐질 대로 데쳐진 몸을 하고 널브러져있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오래만의 온천목욕이었다. 정역 내내 이 온천의 유희 냄새 나는 뜨끈한 물이 몸시 그리웠다. 교도소에서도 따뜻한 물로 샤워는 한다. 하지만 아무리 건달이라 해도 뜨거운 물을 통해 받아놓고 몸을 담그지는 못한다.

석정온천은 7년 전 하루가 멀게 드나들던 곳이다. 고창에 온천수가 나온다는 소식이 터지고 석정온천 상화로 문을 열었을 때, 동식은 무리들과 함께 날이면 날마다 이곳에 와서 몸을 지켰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게르마늄 온천이란 소문을 듣고 인근 정읍 부안은 물론 전주나 광주에서도 사람들이 물러와 게르마늄을 머금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녹진한 일상의 피로를 씻어냈다.

동식은 가슴에 나이키 로고가 박힌 하얀색 추리닝을 입은 뒤 석정온천 밖으로 나

와 아우더에 몸을 실었다. 온천을 마친 후 후배가 하는 풍천장어집에서 장어에 복분자나 한잔 때릴 참이었었는데 조금 전 받은 전화로 느긋한 휴식은 싹 날아가고 말았다. 장난전화일 거라 치부하려 했지만 고창 바닥에서 강동식에게 장난전화를 할 배짱 좋은 놈은 없다. 게다가 굵고 가리얏은 목소리가 사투 진지했다.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누구야! 누구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꼭 놀러놓았던 질문들을 여지없이 내동댕이쳐듯 뽐내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겠고, 어떤 의도로 사람을 죽여 달라는 말을 하는지 알아야 했다. 동식을 함정에 몰아넣으려 일을 꾸밀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경계심은 건달로 살아오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몸에 배게 된 색안경이다.

교도소 철창문을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다. 포승줄을 몸에 두르는 것은 물론 형무소 철문을 들어서는 것도, 경찰서에 불려가는 것도 지겹기 짝이 없다.

‘강동식 씨 아니요?’

상대는 오히려 되물어왔는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음성은 아니다. 첫소리가 나는 것으로 봐서 나이도 꽤 들어 보이는 목소리다.

강동식 씨 아니요? 라는 되물음에 동식이 내동댕이쳐던 질문의 답이 들어 있었다. 강동식은 고창에서는 알아주는 건달이며, 식구들 가운데 가장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취지이다. 맥박이 빨라졌고 긴장되었다. 침을 꿀꺽 삼켜 정상 속도를 벗어나려는 심장 박동을 다잡았다.

▶▶ 작가 오상근 프로필 ◀◀

- 2012년 단편소설 〈여명〉 국무총리상 수상
- 2015년 단편소설 〈그섬에 가면〉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당선
- 2016년 단편소설 〈문어〉 여수해양문학상 대상 수상
- 2016년 단편소설 〈술사탕아포가토〉 한국소설가협회 신예작가 선정
- 장편소설 〈각성당의 비극〉 〈유령선 살인사건〉 〈폐광〉 〈정글암살사건〉 출간
- 문예지 〈현대소설〉 등에 단편소설 수회 발표



고창문화유산탐방학교 개설

고창문화원(원장 이현곤) 부설 고창문화유산탐방학교가 지난달 19일 사전 모임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고창문화유산탐방학교는 고창의 문화유산을 찾아 배우고 걸어보고 널리 전하는 문화가족

동호회로 군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매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9시 고창문화원에서 집결해 사전 통보한 문화유산 유적지로 출발한다.

지난 6월 28일, 첫 번째 탐방은 윤곡람사르습지로 시작으로 대정정의 서막을 열었다. 제2차 탐방은 7월 12일 세계문화유산인 고창고인돌 유적 일원을 탐방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원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서 제광>



관공각



내아

관공각

내아

관공각

내아

관공각

내아

관공각

내아